

2019년 여름호 통권 제25호

미래의 소식



미래인재육성재단

The Scholarship Foundation for Future Leaders

CONTENTS

03	재단 주요소식 청정지역 강촌에서 장학생캠프 성료
04	재단 소식 2019년도 신규장학생 선발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장학생 근황 등
08	제7기 교육기부 봉사단 모집 '가온회'(장학생 자치회) 제12기 임원단 출범
10	2019년도 장학생 캠프 이모저모 북한강이 흐르는 강촌에서 3박4일
12	장학생 소식 지역별 장학생 순회 간담회 진행 서울·경기지역 간담회 후기
13	장학생 캠프 참석 후기 자연속에서 장학생 친구들과 희망을 품다·김아리
14	교육기부활동 후기 대화가 많이 필요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조아혜 작은 나눔이 큰 행복과 에너지로 돌아오는 활동·김민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훈련이 되는 활동·정종혁
17	도전하는 삶 다양한 전문성 향상에 도전!·문소정 삶이란 도화지에 들어갈 것들은 무엇일까?·정예슬
20	인생현장 실천 인생현장, 인생의 긴 여정을 이끌어 주는 척도·신의협 인생현장, 내 삶에 실천하며 자신감 얻어·김홍성
22	감사편지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인생의 목표까지 정해준 재단·이하경 재정지원 외에도 보다 많은 것을 주려는 우리재단·이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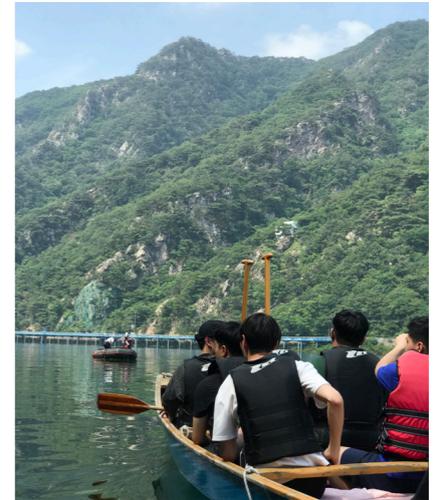
표지사진 설명 : 2019년도 장학생 하계캠프에서

미래인재육성재단 사보 「미래의 소식-News of the Future」 2019년 여름호 (통권 제25호) 발행일 2019년 7월 15일 발행인 겸 편집인·윤웅섭 발행처·미래인재육성재단 072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16, 901호(당산동 대정프라자) (Tel.02-2672-5006 Fax.02-2636-4446) 편집디자인 및 인쇄·대웅씨엔피 (02-2268-8702) 미래인재육성재단 사보 「미래의 소식-News of the Future」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비매물) 인터넷 homepage <http://www.sffl.or.kr>

청정지역 강촌에서 장학생 캠프 성료

3박4일동안 장학생들 친목과 정보교류

재단은 서울시립대학교 강촌수련원에서 7월 1일(월)부터 3박4일동안의 장학생캠프를 마쳤다. [함께:너와 나의 함께]의 주제에 걸맞게 장학생들은 친목과 정보교류로 큰 꿈을 이루는 상생의 동반자로서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뜻을 모으며 유익한 캠프시간을 함께 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강촌에서 카누를 타고 북한강을 유람하고 사륜오토바이와 카트 등의 레포츠도 즐기고 졸업생초청특강, 소주제 토의, 팀빌딩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호연지기와 공동체 의식도 함양했다. 자세한 장학생 하계 캠프 모습은 이번 소식지 10쪽, '캠프 이모저모'에서 사진과 함께 살펴볼 수 있다.매년 실시하는 캠프는 장학생간 인적네트워크 구성에 활력소가 되는 재단의 대표적인 장학생 사후관리 프로그램이다.



2019년도 상반기 재단 일정

- 1. 2 재단 임직원 신년 하례식 (재단 사무국)
- 1. 3 2019년 신규장학생 오리엔테이션 및 인성교육(건국대 동물생명과학관)
- 2. 19 장학증서 수여식 / 가족초청 장학생 인생현장 선포식(서울 가든호텔) 제82차 이사회 (서울 가든호텔)
- 2. 26 1학기 장학금 지급 (등록금 전액과 교재비 50만원)
* 2019년도 신규장학생부터 학업보조비 50만원 확대 지원
- 3. 4 교육기부봉사단 출범 (대상 :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등)
- 3. 22 - 23 서울경기지역 장학생 간담회 (오션스타 사당점)
- 4. 1 - 수시 재단토지(인천 영종도) 개발협의(인천시 중구청, LH공사 등)
- 4. 24 기금운용자문위원회 (재단 사무국)
- 6. 10 제83차 이사회 (재단 사무국)
- 7. 1 - 4 장학생 캠프(서울시립대 강촌수련원)
- 7. 8 - 12 교육기부봉사단 상반기 자체평가

※ 장학생 지역별 순회간담회와 교육기부활동은 연간 계속 실시



2019년도 신규장학생 선발

재단 이사회는 지난 2. 19(화)과 6. 10(월)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법인운영의 주요사항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기금운용 수익증대와 수익사업 발굴 등으로 장학금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학생 선발제도와 관리 등 법인운영 전반에 대한 방침도 협의했다.

- 제82차 이사회 안건(2. 19 서울가든호텔)
 - 2018회계년도 결산
 - 기본재산 편입예외 기부금 직접사용에 관한 건
- 제83차 이사회 안건(6. 10 재단사무국)
 - 임원(감사)선임에 관한 건



2019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대학생 76명, 등록금 전액 및 교재비 지원 확정

지난 2월 12일(화) 재단 사무국 회의실에서 장학생선발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위원회는 2019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대학생 76명을 확정하고 2월 26일(화) 등록금 전액과 교재비 및 학업보조비를 지급했다. 특별히 올해부터 신규장학생들은 등록금 전액과 개인당 교재비 50만원 외에 추가로 학업보조비 50만원까지 수혜받게 되었다. 지급방침은 졸업시까지 전체학기 평균 85점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휴학생은 복학시 장학금 지급을 재개하고 군휴학을 제외한 일반휴학은 2년으로 제한한다. 또한, 장학생이 타 대학으로 편입시에도 장학금은 계속 지원하는 등 미래인재로 성장할 대학생들이 장차 국가사회발전에 공헌하도록 재단은 장학생 관리 및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가족들도 초청 인생헌장 선포식 병행

지난 2. 19(화) 신규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이 날 행사에는 장학생들과 재단 임직원들은 물론 특별히, 신규장학생 가족들도 참석했다. 신규장학생들은 장학증서를 수여받고 인생헌장 10개 항목을 선포하며 이를 생활화할 것을 굳게 다짐했다. 윤용섭 재단 이사장(前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축사에서 '인생헌장의 실천과 습관화를 위한 노력은 여러분에게 올바른 삶의 태도를 체득하게 하여 성공과 행복을 가져오는 지름길이 될 것이며 그것은 개인의 영광이자 재단의 보람'이라고 하며 인생헌장 실천으로 가치있는 삶을 개척할 것을 당부했다. 행사는 장학생 및 가족들과 재단관계자들의 기념사진 촬영으로 훈훈하게 마무리되었다.

*인생헌장 : 나, 남, 일, 효에 관한 10가지 이내의 실천덕목이다. 인생헌장 작성을 위해 윤용섭 이사장이 직접 인성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성개발의 효과를 기대하며 재단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사진1) 환영사(윤용섭 이사장)
- 사진2) 신규장학생들과 가족들
- 사진3) 인생헌장을 선포하는 장학생들



제7기 교육기부 봉사단 출범

자발적인 봉사활동신청자들로 구성된 장학생 교육기부 봉사단 7기가 지난 3월 출범했다. 교육기부란 인적 자원이나 물질 자원을 초,중,고등학생 대상의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의미한다. 재단의 교육기부 봉사단은 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시설 아동들에게 학습지도와 미술, 음악 등 감성 개발을 이끌며 학업능력 향상과 바른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봉사자들은 최소 1년(매주 1회) 이상 교육기부를 진행하는데 재단은 이들에게 매월 1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중이다.

장학생 교육기부 봉사단 7기 명단

성명	대학(전공)	활동시설	성명	대학(전공)	활동시설
우성현	안동대(응용화학)	광명 나눔의 집 그룹홈	조영은	이화여대(경제학과)	세이브더칠드런
이원재	연세대(전문우주)	생명나무 그룹홈	유가영	이화여대(소비자학)	서울 중앙여중 멘토링
홍한결	숭실대(정보사회)	늘 사랑 지역아동센터	문지원	국민대(법학)	꿈나래 지역아동센터
전성덕	영남대학교(건설공학)	대구 꾸러기 환경 탐험대	권혁인	국민대(융합기계공학)	좋은친구 지역아동센터
박찬영	전남대(생명과학)	함세아 그룹홈	이권민	이화여대(환경공학)	서울 꿈사리 집
양은혜	부경대(영어영문)	새들원(보육원)	서범창	성균관대(글로벌리더)	연동 지역아동센터
김민철	부산대(통계)	굿네이버스 지역아동센터	신승현	동국대(정치외교)	생활정책시민연구원
김병훈	성균관대(경제)	강원학사 멘토링 지원단	정종혁	경기대(화학공학과)	샘물 지역아동센터
임희진	대구대(물리치료)	행복한 집 그룹홈	양지호	인하대(기계공학)	공동산 지역아동센터
조아혜	경희대(언론정보)	또 하나의 집 그룹홈	박응진	고려대(바이오시스템)	시정의 집 그룹홈
유가환	이화여대(사회학과)	한국 여성의 집	이지형	한국기술교육대(화학공학과)	천안 지역아동센터

장학생 캠프 단체복 지원받아

장학생의 어머니 10여년 넘게 기부 지원 이어와



매년 장학생들의 옷을 직접 제작하여 기부해 오고 있는 고마운 분이 있다. 2008년 선발했던 이지은 장학생 동문(이화여대 사회, 장학생 6기)의 어머니, 이정애 여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지난 10년동안 장학생 캠프마다 단체복을 지원해 온 것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시겠다는 뜻을 밝히셨다.

동대문에서 의류 도매업에 종사했던 전문성으로 감사를 보답하게 되어 기쁨이라는 어머니는 현재 이지은 장학생 동문이 설립한 (주)페렌벨 화장품 회사 경영의 일선에서 든든한 버팀

목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다. 장학생들도 단체복을 입으며 감사와 나눔의 교훈까지 얻고 있다.

후원자들의 기부금 전달 계속 이어져

기부금 후원액이 증가추세이다. 후원자들은 장학생 동문, 재단 임직원뿐만 아니라 장학생들의 부모 및 일반인들이다. 매달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자동이체로 후원하는 정기적인 기부금, 일시금으로 후원하는 기부금, 장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현물기부, 장학생들이 취업 후 첫 급여 기부 등 기부방법과 내용도 다양하다. 기부금은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실적을 국제청 등 관련 감독기관에 보고하고 있다. 기금운용 이자수입액으로만 장학금을 지원하는 우리재단에 기부금은 장학금 재원에 큰 보탬이다. 이에 재단은 기부후원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다. (소식지 뒷면 기부안내 참조)

장학생 동문회(누리회), 장학금 모금운동 전개

장학생 선배들이 후배들의 대학원 학비 지원

장학생 동문들이 후배장학생들의 대학원 등록금을 직접 지원하고자 모금운동을 전개한다. 연간 1천2백만원을 모금하여 한학기에 300만원씩 2명에게 정액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모금규모를 점차 키워가는 것이 이들의 목표이다. 2014년 8월에 출범한 장학생 동문회(회장 홍성조)는 현재 300여명의 회원으로 수시모임을 통해 정보교류 및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며, 재단과 재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와 같은 장학금 모금운동을 전개한다는 동문회의 뜻을 밝혔다. 재학생중 대학원 진학자를 대상으로 2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지원을 시작한다. 재단도 모금에 동참하는 기부금에 대해 기부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장학금 모금운동에 함께한다.



누리장학금 안내

재 원 : 장학생 동문들의 기부금
 대 상 : 재단 장학생중 대학원 진학자
 지 원 : 학기별 300만원 정액
 선 발 : 동문회(누리회) 총회에서 심의
 기부계좌 : 국민은행 373-25-0003-854
 (예금주 : 미래인재육성재단)
 기 부 금 : 월 2만원 이상



장학생 근황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장학생 동문들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6기 • 김세희(전남대 생명화학) 연세대 화공생명공학 박사 졸업 및 결혼(2019. 10. 26 광주 라페스타웨딩홀) 김혜미(우석대 유아특수교육)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특수교사 이만수(인하대 전자) LG전자에서 컬럼 코리아 연구원 이직 및 결혼(2019. 6. 1) 이지미(조선대 컴퓨터공학) 안랩 근무, 동국대 정보보호학과 석사 졸업 최영미(백석대 경상학부) 굿네이버스 근무, 결혼(2019. 6. 15) 8기 • 김나영(숙명여대 법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부 11기 • 이예은(단국대 도시계획) 단국대학병원 교직원 박동민(포항공대 산업공학) 카이스트 산업공학 석사과정, SIGKDD 데이터마이닝학회 논문 게재 12기 • 임지은(국민대 경영) CO-DESIGN 해외저널지 논문 기고 13기 • 김경진(성균관대 국제경영) (주)포스코 취업 이은영(고려대 불어불문) (주)삼성카드 취업 최승주(국제경영) 우리은행 취업



‘가온회’(장학생 자치회) 제12기 임원단 출범

장학생 자치회 ‘가온회’가 올해 장학생캠프에서 선출되어 1년동안의 활동을 시작한다.

‘가온회’는 지난 2007년 1기 임원단을 최초 출범한 이래 장학생들의 화합과 교류증진에 기여해 왔다.

‘세상의 중심’이란 뜻의 ‘가온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과 지역대표 1명씩으로 총7명의 임원으로 구성되며,

재학생들이 회원이다. 임원들은 앞으로 장학생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며,

각급 대학에 재학중인 장학생들이 서로가 미래인재로서의 자질을 형성해 가는데 전력기로 다짐했다.



가온회 임원단 활동소감



회장_이승준(홍익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베풀어 주는 재단의 일원으로서 회장이라는 직분까지 맡게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항상 감사함을 보답할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회장으로서 조금이나마 재단을 위해 일할 수 있게되어 기쁩니다. 가온회 임원들과 1년동안의 임기를 즐겁고 행복한 재단과 장학생 모임을 일구는데 온 힘을 쏟아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부회장_김병훈(성균관대)

장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염원하는 가온회 임원이 되었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역대 가온회 임원들이 너무 잘해왔기에 부담도 있지만 성실히 최선을 다할 것만은 약속드리겠습니다. 장학생들이 힘들고 지칠 때 생각나는 곳이 바로 우리 가온회가 되도록 편안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 형성에 신경을 써 자주 모여 소탈하게 이야기도 나누는 모임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서울·경기·강원지역 대표_이하경(이화여대)

재단과 장학생들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고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전의 가온회 임원분들이 너무나 멋진 활동을 보여주셨기에 그에 준하여 더 열심히 활동하며 많은 일에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생들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앞으로의 행사들에 장학생분들이 재밌고 즐겁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서울·경기·강원지역 대표_서혜지(서울대)

이번 캠프를 가온회 임원들이 열심히 준비하여 진행한 덕택으로 재밌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 가온회의 활동에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 가온회 임원분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열심히 꾸준히 노력하여 더 발전된 가온회를 이끌겠습니다. 장학생들이 재미와 감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에서 많은 유대와 친목을 나누는데 가온회 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서울·경기·강원지역 대표_유가영(이화여대)

재단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어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가온회 임원들과 선배님들께 많이 배워 열심히 발전해나가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믿어주시만큼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활동하겠습니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 후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선배님들과의 융화에도 노력하는 가온회 12기 임원단이 되었습니다. 그 러기 위해서 먼저 재학생들의 단합과 친목에 우선 노력하겠습니다.



충청·호남지역 대표_문예지(목포대)

가온회 임원활동은 인생에서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할 수 있는 제 역량을 모두 발휘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미래인재육성재단의 장학생으로서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재단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청과 호남의 넓은 지역을 아우르는 끈끈한 친목을 위해 SNS 활용과 오프라인 모임 활성화로 즐거운 대학 생활에 활력소가 되는 장학생 활동을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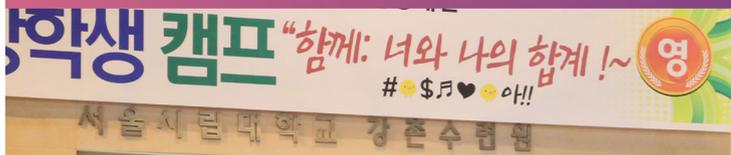
영남지역 대표_손민호(부경대)

영남지역 대표를 맡게 되면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지만 함께 임원단을 구성한 다른 학생들의 역량이 출중하여 안심이 됩니다. 1년동안 임원단의 일원으로서 장학생 여러분의 친목 도모와 재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것도 모두가 함께 할 때 폭발적인 성과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도움과 성원이 다가올 1년동안의 잊지 못할 추억을 가져올 것을 믿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북한강이 흐르는 강촌에서 3박4일

7월 1일(월) 부터 4일(목)
서울시립대학교 강촌수련원에서
재미와 감동이 넘쳐났던
추억을 되돌아봅니다.



- 1 레포츠 (시뮬오트바이)
- 2 윤웅섭 재단 이사장님 환영사
- 3 장기자랑 (총12개팀의 춤, 노래, 악기연주 등 경연)
- 4 북한강 카누투어
- 5 졸업생초청특강(주)코르크 대표 정예슬/ 외인이란?)
- 6 레포츠 (카트)
- 7 레크리에이션(장학생 자치 진행)
- 8 소주제도의(생각나누기)- 대학생할만족도 등 4가지 주제
- 9 민영현 사무국장 클래식 기타 연주(장기자랑 특별순서)





지역별 장학생 순회 간담회 진행

서울 · 경기지역 장학생 정보교류와 친목도모



서울/경기지역 장학생들의 간담회를 지난 3월 22일 오션스타(서울 사당동)에서 마쳤다. 간담회에서 장학생들은 전공, 자격증, 어학, 취업과 진학 등 전문적 소양증진과 활동역량 강화의 계기가 되고 있으며 재단은 장학제도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장학생들은 하계캠프 일정이 계절학기과 중복되어 대안을 찾는 한편, 심리테스트를 통한 진로개발과 인간관계의 올바른 처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하반기에 충청과 호남, 영남지역 장학생들의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 · 경기지역 간담회 후기

천천히 자라는 나무와 같은 우리



문지원 (장학생 12기)
국민대 법학

이번 간담회는 2일 동안 진행된 만큼 재단과 가온회 임원들의 노고가 컸을 것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소한 것도 챙기는 깊은 배려가 감사했다. 도형을 통한 심리테스트는 서먹한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쑥스러움도 점차 사라져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단체 게임도 재미있었다. 인물과 음악을 이용한 버라이어티한 것부터 고깔모자로 눈을 가리고 지정한 물건을 찾는 활동성 있는 게임까지 시간가는 줄 모르고 즐겼다. 특히,



간담회에서 장학생들과

게임상품인 문화상품권은 승부욕에 불을 지피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후, 자유롭게 사담도 나누고 정보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학점 관리와 전공, 진로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맛집이나 여행지 등 소소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고민도 나누며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나만의 고민은 아니라는 생각과 미래를 현명하게 개척해 나아가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인간 관계란 천천히 자라는 나무와 같다는 말처럼 정들은 장학생들과 앞으로도 오랜 시간 함께 하고 싶다. 대학 졸업 후에도 서로에게 힘이 될 존재라는 의미만으로도 미소를 띠우게 되는 친구가 되었으면 한다. 이런 소중한 인연을 맺게 해준 재단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장학생 캠프 참석 후기

자연 속에서 장학생 친구들과 희망을 품다

김아리 (장학생 16기)
가톨릭대 생활과학부



장학생으로서 첫 캠프였기에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캠프는 너무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장학생들과 가장 친해질 수 있었던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둘째 날 진행된 레크레이션과 타임어택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승부욕이 많은 제가 조원들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캠프 주제인 '함께 : 너와 나의 함께'에 걸 맞는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졸업생 초청 특강에서 선배님들로부터 창업과 와인에 대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던 알짜배기 강의를 들었습니다. 선배님들의 캠프 후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말씀에 우리 재단의 큰 사랑과 귀한 인연들이 정말 소중함을 느꼈으며 나도 언젠가는 재단과 후배장학생들에게 도움을 되는 멋진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기자랑에서 여러 재능을 보여준 친구들의 용기와 열정이 너무 멋졌습니다!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 강렬한 춤, 멋진 노래들은 계속 생각날 것만 같습니다.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응원하고 환호하던 모습도 정말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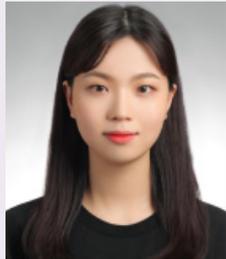
셋째 날의 북한강 카누여행, 사륜오토바이, 카트 등 레포츠도 매우 즐거웠습니다. 카누 위에서 느꼈던 잔잔하고 시원한 바람은 학업으로 지쳐있던 저에게 소소한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구호를 외치며 조원들과의 협동심도 다질 수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노를 저었는지 다음날 팔이 꽤 아파드라구요. 사륜오토바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거칠고 다이나믹한 경험을 선사했는데, 면허소유자지만 운전연습을 다시 해야겠다는 과제를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카트의 그 속도감도 절대 잊지 못할 듯 합니다. 후임 가온회 임원을 선발할 때 내년에 교환학생을 염두하던 저는 자신있게 임원에 출마 하질 못했습니다. 임원으로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항상 응원하는 맘은 변치않을 것입니다. 멋진 임원단이 출범한 것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재단의 캠프마다 전통이 있는데 그것은 마니또! 첫날 각자가 마니또가 되어줄 사람과 미션을 뽑았는데 제가 뽑은 미션은 '마니또에게 부채질 해주기'였습니다. 타이밍 잡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다행히 마니또가 눈치가 조금 없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마니또 활동 덕분에 이름 외우기가 한결 쉬웠고, 마니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하는 미션들도 있었기 때문에 첫 날 자기소개 시간에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니또였던 서범창 친구의 편지도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글로써 다시한번 감사함을 전합니다. 멋진 캠프를 기획하고 진행해 준 가온회 임원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캠프 내내 또 캠프가 끝난후에도 장학생 한명씩 모두 챙겨주시는 과장님과 캠프에서 멋진 클래식 기타연주로 감동을 선물해주신 우리 국장님, 자상한 큰 언니같은 정인자 선생님과 우리재단의 큰 어른이신 존경하는 윤용섭 이사장님! 너무 과분한 큰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최고의 인재로 거듭나겠습니다.

함께! 너와 나의 함께! 우리는 하나이고 사랑입니다.

대화가 많이 필요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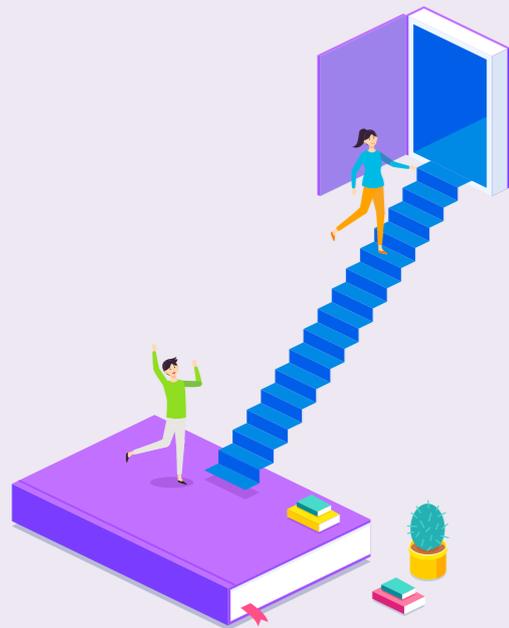
조아혜 (장학생 16기)
경희대 언론정보학

학생들에게 나의 재능을 조금이나마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기쁨, 그것이 교육기부의 매력적인 일부입니다. 교육기부를 시작한 건 고등학교 때이다. 그저 친구를 따라갔던 봉사활동 한번, 그것이 나를 교육기부로 빠져들게 했다. 부족한 나의 지식을 얻어가고 감사해 하는 아이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이렇듯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아이들에게 내가 가진 지식을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었다.

약 2개월간 교육봉사를 꾸준히 하면서 교육봉사의 새로운 면을 많이 마주했다. 교육을 받기로 한 학생은 정서적인 결핍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행동이 드러나는 아이였다. 지식을 전하기가 끝인 줄 알았던 교육봉사에서 학생의 행동은 나를 당황스럽게 했다. 처음엔 대화도 잘 이어지지 않는 느낌이라 봉사에 대한 나의 목표를 이룰 수 없는 느낌이었다.

‘이 학생을 잘 가르쳐주자, 지식을 전달하자’에만 목적을 둔 나의 생각이었다. 그동안의 나의 태도를 돌아보니 학생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있었다. 문제점을 깨닫고 봉사시간엔 학생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다. 공부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꿈, 좋아하는 아이돌, 학교 생활 이야기를 하며 마음을 터놓고 친한 언니처럼 지내고자 했다. 학생은 꿈에 대해서 이를 수 없다고 말하였다.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은 채, 그 나이인 학생이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안은 채, 공부를 못하기에 대학에 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모습은 마음을 아프게 했다.

어린 학생이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로선 충격적인 이야기였기에 해결책을 이야기해주지 못하고 말문이 막히기도 했다. 겨우 학생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공부를 포기하지 말고, 다른 걱정을 하지말자’라는 말을 꺼냈다. 이번 봉사를 계기로 학생의 상황에 공감하고, 대화를 통해 서로 알아감의 중요성을 느꼈다. 지금은 열심히 따라오려 노력하는 학생이지만 이 학생처럼 걱정 안고 있는 학생들이 많기에 봉사활동에선 학생들의 생각에 공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며 봉사활동자로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작은 나눔이 큰 행복과 에너지로 돌아오는 활동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앞두고 누구나 그렇듯이 많은 계획과 고민을 했습니다. 교육기부활동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죠.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교육기부를 꾸준히 했기에 낯설지 않은 활동이었으나 복학 후 학교적응과 전공공부에 깊이 매진 할 시기여서 교육기부활동을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중에 교육기부에서 얻은 것들이 하나 둘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던 시설 관계자분들과 항상 순수하고 밝게 저를 따라주고 웃어주던 아이들이 떠올랐지요. 이러한 따뜻하고 순수함을 다시 찾아 교육기부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매주 인근 지역아동센터에서 중학생들의 영어학습을 지도중인 저에게 있어 교육기부란 자신을 위한 활동입니다.

아이들 스스로 열심히 학업에 전념토록 자기주도적 학습방법을 관리해주면서 저에 대해서도 스스로의 학습계획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매번 반성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들 학습 전에는 잠시 초등학생들도 지도중인데 어린애들이라 까불고 말을 안들을 때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아이들의 미소를 볼 때마다 무언인가 해줄 수 있다는 것에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교육기부활동을 하다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행복한 느낌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교육기부를 통해 이러한 점들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과 진로 때문에 시간과 여유가 없고 걱정이 많다는 이들에겐 특히, 교육기부 활동을 꼭 권유하고 싶습니다.

왜냐구요?

바쁠 때일수록 스스로의 내면과 깊은 대화를 하고 지친 심신을 폭발력 있는 에너지로 충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육기부활동이니까요.

어때요?

우리 함께 작은 나눔으로 큰 행복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교육기부활동에 참여해볼까요?



김민철 (장학생 13기)
부산대 통계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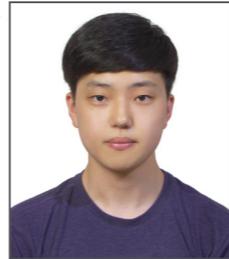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훈련이 되는 활동

교육기부는 개인별 수준과 다양성에 맞춘
집중지도가 효율적

2018년도부터 2년동안 교육기부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쉽게 작년엔 활동했던 지역아동센터 사정으로 올해는 새로운 곳에서 봉사중입니다. 시설의 학습지도 형태는 기존시설처럼 학습반을 꾸려 학원식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로부터 각각 질문을 받아 개별적으로 교육하는 시스템입니다. 새로운 변화로의 적응은 개인적으로 굉장한 혼동이었습니다. 다수 학생들을 학원식으로 가르치는 스타일은 낯설지 않아 무척 편했는데 새로운 시설의 질문에 의한 개별지도 형식은 많은 시간과 노력도 필요하고 익숙치 않았습니다. 몇 개월의 혹독한 적응기를 벗어나 이제는 아이들 각각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하고 그것들을 바로 충족해 줄만큼 익숙해졌습니다.

교육기부란,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전달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학생들을 헤아리고 이해하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전달 이전에 선생님과 학생 관계의 틀을 깨고 형 또는 선배나 때로는 친구처럼 먼저 알고 있고 체험하며 느꼈던 것을 몸소 보여주며 진심으로 소통할 때 교육기부의 큰 목적인 가르침과 교육의 틀 안에서 진정한 나눔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정중혁 (장학생 15기)
경기대 환경공학

확실히 교육기부는 개인별 수준과 다양성에 맞춘 집중
지도가 효율적입니다. 전공이 공학이지 교육학은 아니기
에 주제 넘은 이야기일 수 있겠으나 느낀 그대로를 표현
한 것입니다.

개인질문에 맞춘 각각의 개성을 존중하는 만큼 준비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힘들었지만 학생 각자의 괄목할 만한 학습 참여도와 학업능력 성장은 힘든 맘을 보람으로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저도 아이들로부터 많은 것을 느끼고 스스로 돌아보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인재육성재단이 우리 장학생들의 각각의 개성과 필요를 항상 채우고자 하셨던 그 의미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교육기부 봉사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릴만큼 활동이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네요. 교육기부는 저에게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며 이해하려 애써야 할 중요성을 깨우쳐 준 감사한 활동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것을 체험하며 보람을 일구는 교육기부를 성실히 이어가겠습니다.

도전하는 삶

두 마리 토끼를 쫓는 무모한 도전도 정성만 기울이면 성공!

현재 SK이노베이션 기술혁신연구원 윤활유 기술UNIT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과 대학원 진학의 두가지 갈래 길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농약 분석 실험실에서 인턴생활(1년)을 하면서 유기화학분야에 흥미를 갖게되어 연구직에 종사하고자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에서 유기합성을 전공했는데 주요분야는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합성이었습니다. 부 연구주제로 원유 내 중금속 물질 제거 킬레이트 화합물 탐색도 병행했습니다. 부 연구주제가 유기합성과 거리가 멀어 초반에 포기하고 싶을만큼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전문성을 겸비하고자 주요 연구분야도 아닌 낯선 연구 주제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주된 연구주제에 부합할 만큼 연구 성과를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난 후의 결실은 달콤했습니다. 유기화학과 원유 두가지를 다루어 본 연구 경험 덕분에 현재 다니고 있는 정유회사의 연구직까지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학부시절 싱가포르로 교환학생 다녀온 경험이 취업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원 생활은 매우 바쁘기에 별도의 영어 등 어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6개월의 짧은 해외생활 경험이었지만 공인 영어시험 점수 획득은 물론 영어면접에 자신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주어진 학교 생활 외에 실험실 인턴생활, 교환학생 등 다양한 경험을 펼친 것이 제 커리어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또 추구하는 바와 약간 다른 일을 하더라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 또 다른 기회를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현재 차세대 엔진오일 연구를 통해 자동차 연비향상을 추구하고 있고, 더 나아가 친환경 엔진오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된 연구와 넓은 경험을 통해 도로 위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원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다양한 전문성 향상에 도전!



문소정 (장학생 11기)
서울대 응용생명화학
SK이노베이션
기술혁신연구원



삶이란 도화지에 들어갈 것들은 무엇일까?

가장 오래된 기억 속의 나는 하얀 도화지를 마주하고 있었다. 알록달록한 물감들을 앞에 두고 세 살배기 고사리 손으로 어설피게 붓을 잡고, 어떤 색을 먼저 칠할지 신중하게 색을 고르고 있었다. 그러나 옆자리에 있던 친구가 실수로 붓 씻는 물통을 엮어버린 탓에 나의 새하얀 도화지는 미처 붓을 대기도 전에 온통 얼룩덜룩한 색으로 물들었고, 어린 마음에 그 상황이 어찌나 야속하고 서글프던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난다.



내 삶 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놀이이자 일상이었다.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나의 진로는 미술이 되었다. 미술 전공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 동양화로 대학원 석사과정 까지 밟고 있다. 혼자서 그림을 그리며 나의 작은 세계를 종이에 구현하는 일들은 성인이 되어 더 크고 다양한 다른 세계들을 만나면서 많은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미술이란 매개체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의 느낌 그대로를 종이에 담아내고 표현하는 일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다. 나름대로 어렵게 표현 방식을 찾아내고 동기들은 이미 떠난 후에도 1년을 휴학하며 준비한 대학 졸업작품이었지만 심화단계에 이르자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거대한 벽을 마주한 기분에 막힌 바 있다. 그렇게 같은 고민을 반복하고 같은 벽에 부딪히기를 수 십 번, 내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다는 좌절감을 느낄 때 즈음,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나에게 타로카드 점을 봐주었다. 그 순간이 나의 삶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바꾸어 놓았다. 크고 작은 스트레스와 심란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보고자 재미로 타로카드점을 본 것 뿐이었는데 큰 위로와 공감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새로운 취미로 2년 째 타로카드를 공부하며 타로점의 상당한 경험이 있는 준전문가가 되었다. 타로카드 는 사람들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해준다. 단순하게 미래를 점치는 점술적인 의미보다 고민을 나누고 공감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소통의 측면이 매력적이며 이 부분이 나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내가 미술을 통해 나의 생각을 종이 위에 담아내고자 노력했던 그 모든 과정은 사실, 자아의 표현보다 그렇게 표현된 내 모습의 일부를 사람들이 공감하길 바라고 읽어주길 바라는 소통의 목적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타로는 그 소통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나눌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었다.



정예슬 (장학생 7기)
서울대 동양학과
(주)코르크 대표



최근에는 공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림과 타로 모두 나에게 있어서 소통을 위한 매개체란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잠시나마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던 중, 지금까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와인바 사업의 기회가 생겼고 나는 홀린 듯 그 기회를 붙잡았다. 현재는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함께 어울릴만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전에는 나를 표현하기에 몰두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섞이고 흘러갈 것인가에 몰두한다. 나의 새하얀 도화지에 물통이 엮어졌을 때의 너무나 어렸던 나는 스스로의 뜻대로 되어야만 하고 가장 중요한 나만의 세계가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해 망가져 목놓아 울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성장한 나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이제는 그것들은 단지 나만의 것이라기보다 어떻게 내 그림의 일부가 될지를 고민할 것 같다. 삶은, 혼자서 고고하게 흰 도화지 위에 완벽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우연들 속에 내 스스로의 것들을 덧붙이고 허물어버리며 더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요즘이다. 물론, 정말 아니다 싶으면 담담하게 새로운 종이를 꺼낼 수도 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내가 졸업작품 이후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벽처럼 느껴졌던 이유는 내가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알지 못해서였지 어떻게 표현해야되는지 몰라서 전혀 아니었다. 지금은 무작정 그림으로 표현하는 대신 만나고, 대화하면서 수많은 인연들과 흐르고 섞이는 삶을 살면서 또 다른 그림을 그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우연적인 사건들이 나의 도화지를 물들일지 모르겠으나 두려워하기보다 즐기면서 좋은 방향으로 흐르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

너무 내 것만 표현하고 내세우기보단 물이 섞여 흐르듯 순탄하게 사람과 다양한 문화와 소통하는 여유가 뽀뽀한 경쟁사회에서 나를 따뜻하고 심 같은 포근한 삶의 한 쪽의 여백이 되지 않을까 싶다.

"



▲ 정예슬 장학생 동문 졸업작품

인생현장

인생의 긴 여정을 이끌어 주는 척도

신의협 (장학생 13기) 서강대 전자, 현 동대학원 석사과정

깊은 고민으로 작성해야 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 후 스스로 의식하며 지켜가는 행복만들기의 동력이 되는 우리재단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작성했었던 인생현장 실천사항 10가지와 인생목표입니다.

인생현장 작성 후 4년을 되돌아보니 실생활에서 인생현장을 항상 지키기 어렵지만 늘 숙지하고 그렇게 살고자 애쓸 때 인생목표에 확실히 다가설 수 있다는 확신과 얻은 것이 많습니다.

첫 번째, 힘든 순간에도 거뜰히 이겨낼 수 있는 버팀목이 인생현장입니다.

덕분에 휴학 등 한학기도 쉬지 않고 대학 졸업 후 바로 대학원 생활을 활기차게 능동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현장은 내가 원하고 행복할 수 있을 길로 이끌어 주는 척도입니다.

목표로 했던 음성인식 및 인공지능 분야의 대학원 연구실에서 인생현장과 인생목표에 다짐한 것을 실천하며 막연한 꿈을 현실로 이루어 가는 중입니다.

세 번째, 작은 인연도 소중히 여기며 항상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삶에서 중요한 것을 잃지 않도록 이끄는 구심점입니다.

인생현장에서 나와 남을 대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은 이제는 기본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전공분야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깊은 인연과 경험을 쌓아가는 중

입니다. 재단 장학생 모임인 '가온회' 회장으로서 얻었던 소중한 인연과 경험들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네 번째, 인생현장의 삶의 자세를 지켜나갈 때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래에 직접 책을 써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생겨 곧 저자로서 책을 출판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항상 카메라에 많은 사람들과 풍경을 담아왔던 저를 기억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소하고 작은 순간의 사진 한컷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역사가 되어 지나온 여정을 형상화 합니다. 인생현장 실천도 이러한 사진들처럼 한 장씩 쌓여갈 때 아름다운 인생을 일구어 낸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과 10개의 문장을 작성하여 선포했던 경험이 제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인생현장

내 삶에 실천하며 자신감 얻어

김홍성 (장학생 16기) 전북대 유기소재섬유공학

2019년 새해 시작과 더불어 인생현장을 작성하면서 우선은 당장 올해를 어떻게 보낼지 먼저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완성한 인생현장을 가족들 앞에서 선포하며 앞으로 변화되어 갈 나의 모습에 기대와 설레임을 느꼈습니다.

인생현장 실천에서 저도 몰랐던 스스로의 좋은 태도들을 알게 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하고 싶은 자신감도 생겨 삶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불링 동아리 회장을 맡으며 인생현장 중 <일>을 현명하게 처리하는 지혜에 기록한 사항들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한 일에 책임을 진다'를 지키려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사명감으로 동아리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하다는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고 대책을 세운다'에서 주요사항을 회장단들의 단편적 생각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모든 회원들과 여러 관점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결정하고 타대학 불링 동아리의 조언까지 얻어 여러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부분과 전체를 보며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동아리에 치중한 학교생활로 때로는 힘들고 불만이 앞서기도 했지만 동아리회장으로서 일반회원과 다른 경험과 책임감을 가지고 유익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사고의 전환과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즐겁게 캠퍼스의 낭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꼬여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을 때 인생현장을 떠올리며 자신을 추스르며 스스로

와 경영하는 지혜와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큰 인생목표를 위해 오늘 하루도 내일도 인생현장을 스스로 실천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나의 인생 목표

나는 최고의 섬유 디자이너가 되어 사람들에게 멋진 패션과 추억을 선사하며 예술가로서의 명성과 행복을 얻는다.

1. <남>들과 조화를 이루는 지혜
 - 1-1 밝은 표정으로 웃으며 먼저 인사한다.
 - 1-2 남을 돕고자 정성을 다한다.
 - 1-3 남을 비난하지 않고 칭찬한다.
2. <나> 자신을 경영하는 지혜
 - 2-1 나의 소중함을 알고 심신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 2-2 부지런하며 힘들 때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본다.
 - 2-3 계획을 세워 시간을 활용하고 돈을 아껴쓴다.
3. <일>을 현명하게 처리하는 지혜
 - 3-1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한 일에 책임을 진다.
 - 3-2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고 대책을 세운다.
 - 3-3 부분과 전체를 보며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
4. <효>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 4-1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안부 전화를 자주 한다.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인생의 목표까지 정해준 재단



이하경 (장학생 16기)
이화여대 컴퓨터공학

안녕하세요? 대학교라는 새로운 사회에 입학했을 때 해냈다는 기쁨과 함께 어떻게 미래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할지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당장 마주한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도 많았습니다. 영광스럽고 감사하게도 미래인재육성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학기 마다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제 미래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캠프와 간담회 등 여러 장학생행사에서 재단의 과장님을 비롯한 많은 재단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규장학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작성한 '나의 인생 현장'은 제 인생에서 고민이 되거나 길을 잃고 헤멜 때 마다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생현장에 적었던 '검이불루 화이불치',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이 글귀와 같은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아 인생 현장에 적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최근에는 제 방에 한문 서예로 적어 붙여 놓고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도움까지 주신 재단에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서울·경기지역 간담회에서 저의 고민 상담 이야기임에도 자신의 일처럼 들어주시고 진심 어린 조언들을 해주신 덕분에 저도 마음을 열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다가오는 여름 캠프도 기대되고 좀 더 다양한 사람들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고 제 진로를 넓혀가면서 사회에 제가 받은 도움과 같이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관계자분들, 장학생들, 이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 무더운 여름 모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지원 외에도 보다 많은 것을 주려는 우리재단



이원재 (장학생 16기)
연세대 천문우주

장학생 선발로 너무나 기뻐하시던 할머니, 저를 대견스러워 하시던 이모, 그리고 누구보다 아들이 자랑스러운 부모님이 오셨던 장학증서 수여식 때가 떠오릅니다. 가족의 보살핌만 받던 제가 처음으로 가족들에게 무언가 보답을 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자신감과 긍지를 갖게 해주신 우리 재단 앞에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우선 학업비 지원에 대한 감사는 짧은 글로 다 표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등록금이 다른 대학교에 비해 높은 우리학교를 생각할 때, 감사함은 몇 갑절 더욱 커집니다. 학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뿐이었는데 큰 부담을 해결해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도움입니다. 거기에 교재비와 학업보조비까지 추가로 지원해주셔서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로 시간을 쓰고 부담을 느낄 때 저는 학업에 더욱 집중하며 우수한 성적으로 재단의 도움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도움으로 학업 외에도 동아리, 학생회 임원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금전적 지원 외에도 재단의 교육기부활동과 인생현장 작성과 실천은 스스로의 삶에 대한 태도를 다잡게 해주었습니다. 학업을 대하는 마음이 흐트러질 때, 대인관계 등 삶의 곳곳에서 우리재단 이사장님이 강조하셨던 역사사지의 자세를 명심하며 문제들을 헤쳐 나가겠습니다. 교육기부활동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의 보람을 확연히 느끼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습도 하고 놀기도 하면서 외국에서 온 학생들에게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재단의 도움이 저를 통해서 이 학생들에게도 전달되는 것 같아 너무 뿌듯합니다. 학생회 임원으로써 대학생활중 많은 학생들을 관리하며 행사를 진행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있습니다. 장학생 교육, 캠프, 간담회를 멋지게 기획하고 준비하는 재단 사무국 직원분들과 우리 장학생 가운회 임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재단이 단순히 등록금을 내 주는 곳이 아닌,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하고 의미있는 것들은 다양한 교육과 활동에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함을 생각하며, 재단에 부끄럽지 않은 장학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십니다



인재육성으로 밝은 내일을 열어갈 후원자를 모십니다

1983년 설립된 우리재단은
“각급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생을 포함한 국민의 수련, 학술연구 및 교류 등
으로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미래인재육성의 큰 뜻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후원안내

기부방법

정기기부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로 후원
(5,000원 이상)

01

정액기부

일정 금액을
일시 또는
분납 후원

02

기탁기부

특정한 사업과
대상자를 정하여
장학금 기탁

03

입금계좌 : 국민은행 373-25-0003-854 (미래인재육성재단)

※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3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